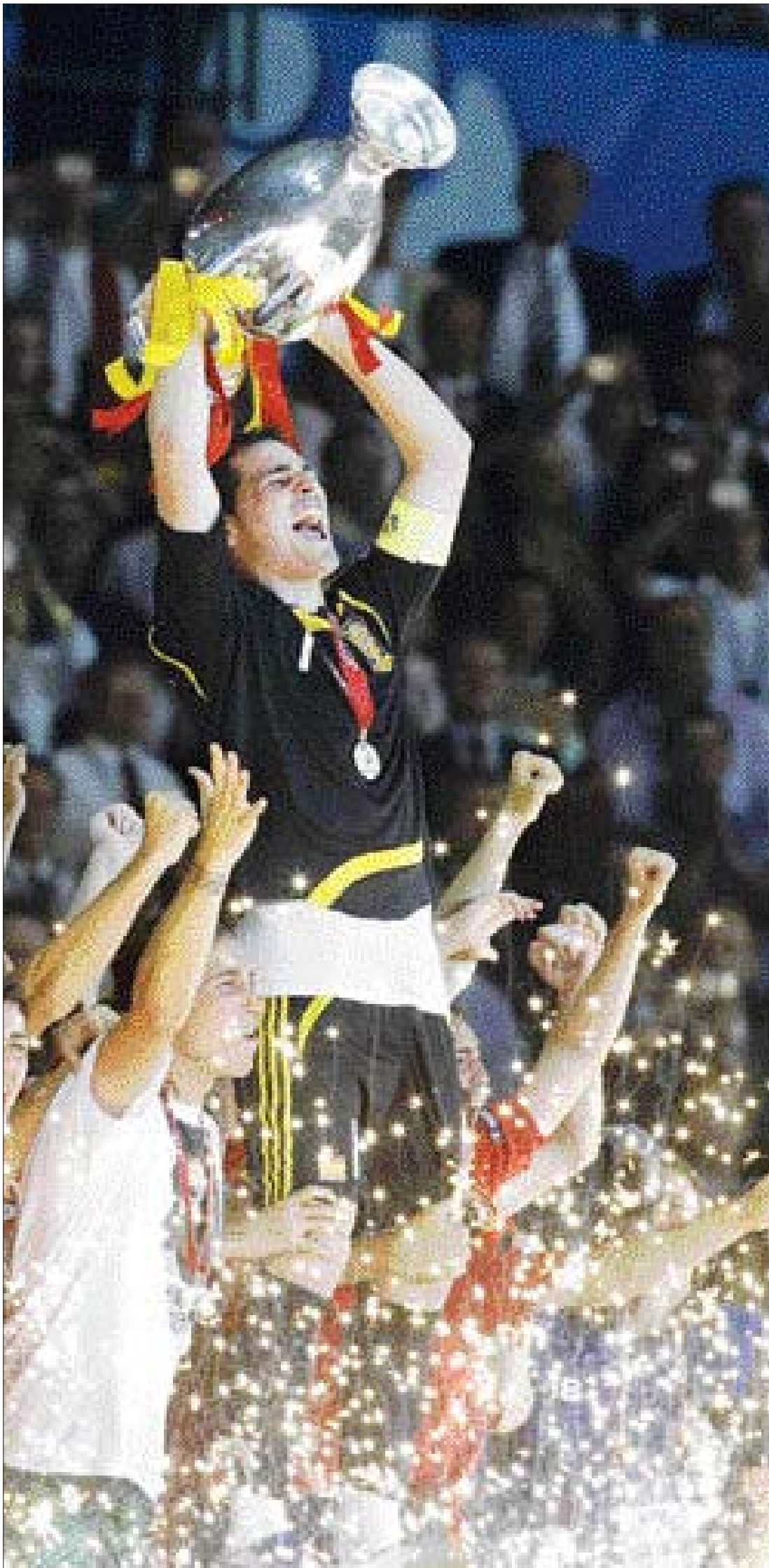


세계정당인사관공무원공무원으로 상선공무원이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역 인근
- (명동출발)IC 영수순 10000계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www.hpdynehy.co.kr 0801 320-7700



지난달 30일 오스트리아 빈 에른스트하펠 슈타디온에서 열린 유로2008 결승에서 스페인이 독일을 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뒤 스페인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적함대’ 44년만에 메이저 정상 축포

스페인 토레스 결승골  
‘전차군단’獨에 1-0 승  
사비 최우수 선수 영예

‘무적함대’ 스페인이 ‘전차군단’ 독일을 꺾고 44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스페인은 지난달 3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빈 에른스트하펠 슈타디온에서 열린 2008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결승에서 전반 33분 간판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의 득점으로 독일을 1-0으로 눌렀다. 이로써 스페인은 자국에서 개최된 1964년 대회 이후 44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스페인이 월드컵 등 메이저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것도 1964년 유럽선수권 이후 처음이다. 반면 대회 최다 챔피언(1972, 1980, 1996년) 독일은 통산 네 번째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아 스페인이 우승컵인 앙리드르네펀에 입 맞추는 모습을 지켜봤다. 스페인은 대회 우승 상금 750만 유로(약 124억 원)도 가져갔다. 스페인의 공격형 미드필더 사비 헤르난데스(28·바르셀로나)는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공격형 미드필더인 사비는 조별리그를 포함해 총 5경기에 나서 1골을 뽑아내면서 1964년 이후 44년 만에 스페인의 유로 2008 우승에 큰 힘을 보탤다.



대회 최다인 4골을 기록 중이던 다비드 비아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빠진 스페인은 토레스를 최전방 원톱에 내세운 4-1-4-1 포메이션으로 독일에 맞섰다. 스페인은 전반 23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라모스가 미드필드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토레스가 골 지역 왼쪽에서 헤딩으로 돌려 놓았지만 골포스트를 맞고 나와 땅을 쳤다. 전반 25분 반격에 나선 독일의 발라크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날린 오른발슛은 수비수 몸대 맞고 나왔다. 마침내 전반 33분 스페인의 우승 한 풀이를 알리는 역사적 장면이 찾아왔다. 사비가 미드필드 중앙에서 독일의 일차 수비를 무너뜨리는 송곳 같은 패스를 찼다. 그 순간 토레스가 독일 수비수 팔리프 람과 몸싸움을 벌이며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파고든 뒤 달려 나온 골키퍼 레만을 보고 오른발로 살짝 차 올렸다. 토레스의 발 끝을 떠난 공은 반대편 골대 쪽으로 굴러 들어가 골망을 흔들었다. 대회 득점왕은 이날 결장한 스페인 비아의 뒷으로 돌아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 웃고

토레스

비아

아르센

## 유로 2008 스타들 희비 교차

### 토레스 ‘우승 견인’... 발라크 ‘또 준우승’

스페인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에서는 20대 중반의 새별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반면 테러리 앙리(31·프랑스)와 미하엘 발라크(32·독일), 릴리앙 튀랑(36·프랑스) 등 내로라하는 일부 기성 스타들은 조용하게 대회를 마감했다. ‘무적함대’ 스페인의 간판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24)와 다비드 비아(27)는 유로2008에서 위력적인 투톱을 이뤄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했다. 토레스는 예선 12경기 가운데 7경기 에 나와 2골 밖에 넣지 못했지만 독일과 결승전에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해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며 최고의 스타로 우뚝 섰다. 예선 11경기를 뛰며 7골을 넣었던 비아는 비록 부상으로 결승전 엔트리에서는 빠졌지만 러시아와 첫 경기에서 작성한 헤트릭을 포함, 모두 4골로 대회 득점왕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탈리아와 8강에서 신들린 듯한 선

방으로 승부차기 승리에 추억이 된 스페인 수문장 이케르 카시야스(27)도 이 대회를 통해 빛을 내뿜었다. 구 소련 해체 이후 처음으로 4강에 진출한 러시아의 안드레이 아르샤닌(27)과 로만 파블류첸코(27) 역시 떠오른 별들이다. 파블류첸코는 188cm의 장신임에도 민첩한 몸놀림과 유연성으로 이 대회에서 모두 3골을 넣어 득점 공동 2위에 올랐다. 독일 주장이자 플레이메이커 발라크는 결승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또 무릎을 꿇고 ‘비운의 스타’로 이름을 남기게 됐고 네덜란드 골키퍼 에드윈 판데르사르(38) 역시 러시아와 8강전 패배 이후 대표팀에서 빠졌다고 선언했다. 두 골을 사냥한 튀르키예의 판 니스텔로이(32·네덜란드)와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27·스웨덴), 한 골에 그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3·포르투갈) 등 내로라하는 골잡이들도 소속팀 탈락으로 일찌감치 짐을 싸들었다.

## 울고

발라크

앙리

호날두

## 가이 100m 9초68... 비공인 美 육상대표선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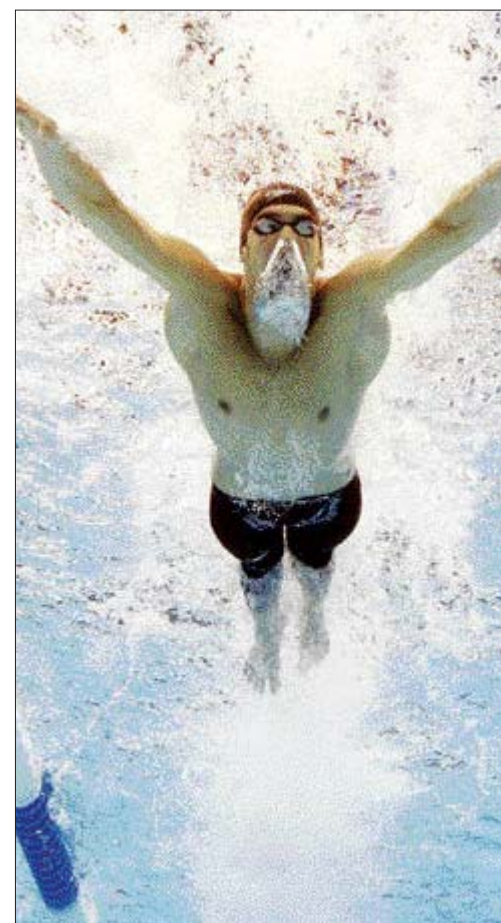


스프린터 타이슨 가이(26·사진)가 남자 육상 100m에서 9초68이라는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미국 대표로 뽑혔다. 로이터통신, AP통신, AFP통신에 따르면 가이는 지난달 30일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필드에서 계속된 미국 대표선발전 100m 결승에서 바람의 도움으로 9초68이라는 역대 가장 빠른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날 풍속은 초속 4.1m로 기준 풍속(초속 2.0m)을 훌쩍 넘어 가이의 기록은 세계기록으로 공인되지 못했다. 이 부문 세계기록은 지난 1일 뉴욕 리복 그랑프리에서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가 초속 1.7m 바람이 부는 데서 작성한 9초72다. 가이는 1996년 오바펠레 톰슨(바베이도스)이 작성한 비공인 세계기록(9초69)을 갈아치우면서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육상 4관왕에 오른 흑인 육상 영웅 제시 오웬스를 기리는 뜻에서 이날 감정색 바탕에 흰색과 붉은색 줄무늬가 대각선으로 뻗은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가이는 초반부터 폭발적인 페이스를 펼친 끝에 여유 있게 우승했다. 그는 전날 예선에서 9초77을 찍어 처음으로 9초7대에 진입하고 역대 4번째로 빠른 100m 기록을 쓴 데 이어 이날도 비공인 세계신기록으로 정상에 오르면서 올림픽 금메달 0순위 후보다운 기량을 보였다.

## 펠프스 개인혼영 400m 4분05초25 美 수영대표선발전

### 세계 신질주

베이징올림픽 수영 8관왕을 노리는 ‘수영왕제’ 마이클 펠프스(23·사진)가 미국 대표선발전 첫날부터 세계신기록을 갈아치우며 힘차게 출발했다. 펠프스는 지난달 30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오크마주 네브래스카에서 열린 미국 올림픽 수영대표 선발전 첫 날 남자 개인혼영 400m 결승에서 4분05초25에 터치패드를 찍으며 1위로 골인했다. 이 기록은 자신이 작년 4월1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세운 4분06초22의 기존 세계 기록을 1초 가량 앞당긴 것이다. 이번 선발전에서 개인 종목 13개 가운데 자유형 50m와 400m, 1,500m, 평영 100m, 200m 등 5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 도전하는 펠프스는 시작부터 세계기록을 작성하면서 베이징올림픽 최다관왕 꿈을 부풀렸다. 세계신기록은 여자 개인혼영 400m에서도 나왔다. 케이티 호프는 4분31초12로 가장 먼저 골인하며 4분31초46의 기존 세계 기록을 0.34초 줄였다. 남자 자유형 400m에서는 라스 쟈슨이 3분43초53으로 1위를 차지했고, 피터 밴터케이가 3분43초73으로 2위로 들어오며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쟈슨의 기록은 이 종목에서 한국 수영 사상 최초로 올림픽 수영 금메달을 노리는 박태환(19·단국대)이 지난 4월 동아수영대회에서 작성한 3분43초59의 아시아기록보다 0.06초 빠른 것이다.



## 김동진·김정우 와일드카드 올림픽 男 축구대표팀 합류

수비수 김동진(제너트)과 미드필더 김정우(성남)가 와일드카드로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대표팀에 합류한다. 박성화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지난달 30일 오후 파주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코칭스태프 회의를 연 뒤 와일드카드가 포함된 40명의 예비 명단을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발표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와일드카드 후보로는 김동진과 김정우를 비롯해 수비수 김치우(전남)와 최효진(포항), 미드필더 염기훈(울산) 등 다섯 명이다. 올림픽 남자축구는 23세 이하로 출전 연령을 제한하지만 팀 세 명까지 24세 이상 선수를 뽑을 수 있다. 박 감독은 지난달 29일 울산으로 내려가 직접 만난 염기훈의 경우 부상에서 회복됐으니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지난 4월 3일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예비 명단(48명)의 와일드카드 후보 중에서는 미드필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김두현(웨스트브롬), 공격수 조재진(전북), 수비수 김치우(서울) 등 4명이 빠지고, 최효진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올림픽대표팀은 7월7일 낮 12시 파주NFC에 소집돼 탐금질에 들어간다.